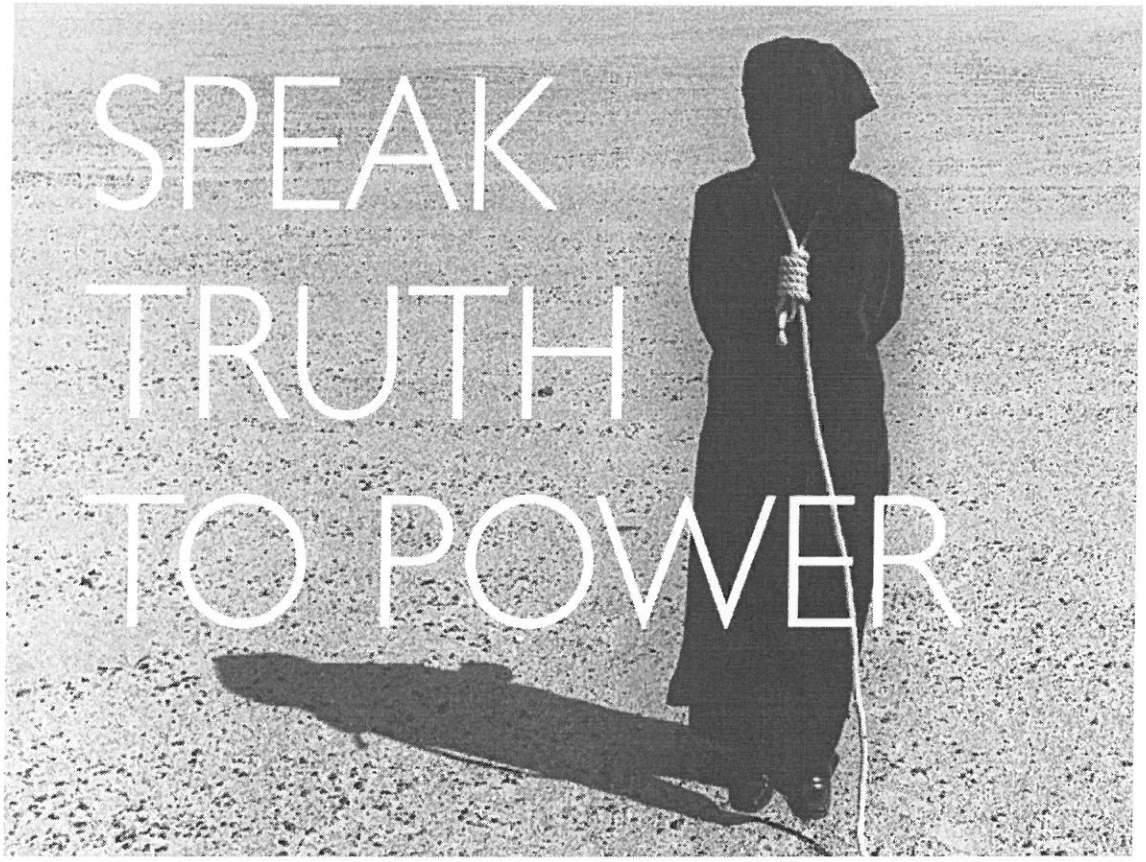
공연 날짜 : 2012년 12월 10일 5시 30분 (리허설 4시)

공연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지하 1층)

출연 : 박옥출, 조아라, 기민호, 전진모, 김남건, 황승환, 박지혜, 오정택, 박다솔

대표자 연락처 : 김남건 010-7942-4610 / geon@karts.ac.kr

원작자 : 아리엘 도르프만



김근태 치유센터 후원의 밤 행사장. 무대 양 옆 스크린에는 <SPEAK TRUTH TO POWER> 라는 이미지가 보여진다. 공연 소개 멘트가 나가는 도중 무대 위에는 8개의 보면대가 가지런히 정렬된다. 보면대 뒤, 무대 가운데에는 무대 뒤를 향하는 의자 하나가 놓여있다. 무대 준비가 완료되면 객석의 조명은 어두워지고 단정한 차림새를 갖춘 8명의 배우가 차례로 등장한다. 그리고 그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한 남자가 등장하여 객석을 등진 의자에 앉는다. 배우들은 보면대 위에 각자의 대본을 펼치고 서로 눈을 맞춘 후 천천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스크린에 <SPEAK TRUTH TO POWER> 사진이 영사되고 있다.

(진모)

용기는 하나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
간단하다.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괴로워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뿐이다.

(남자)

그들도 안다. 모른다고는 못한다. 눈을 뜨고도 외면했다고는 못한다.

(지혜)

당신은 죽음의 복도로 걸어 들어갔고, 그래서 당신은 안다. 이 순간이 당신의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걸 안다.

(아라)

당신은 죽음의 복도로 걸어 들어갔고……

(민호)

……그래서 당신은 안다, 이 순간이 당신의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걸 안다.

(아라)

당신이 아는 것은 그것뿐이다.

(다솔)

내가 아는 것은 그것뿐이다. 어둠 속에서 고문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어둠 속에서 진실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나는 안다.

(남자)

저 사람은 알지.
어둠 속에서 고문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어둠 속에서 진실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저 사람은 알지.

(다솔)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괴로워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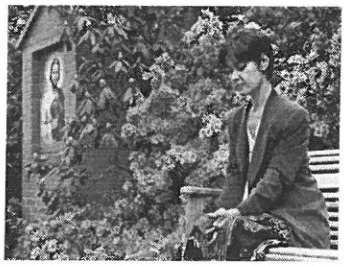
(정택)

당신은 죽음의 복도로 걸어 들어갔고……

박다솔

나는 이 기억으로부터 풀려나고 싶어요. 내 이름은 다이애나 오티즈예요.

***스크린에 다이애나 오티즈라는 이름과 사진이 나타난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고문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냄새도 맡을 수 있어요. 내 귀에 대고 소곤거리는 소리도 들려요. 다 기억나요. 그 경찰관이 나를 또 강간했어요. (휴지). 나를 고문한 사람들은 재판을 받은 적이 없어요. 고문을 지휘한 미국인도 재판을 받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무고한 시민이 고발당하고, 심문당하고, 고문당하는 게 어떤 건지 안다는 거죠. 다름 아닌 내 나라 정부가 정의에 대한 나의 요구를 회피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 인격을 짓밟는 게 어떤 건지 안다는 거죠. 내 사건이 정치적 문제가 될까봐 그러는 거거든요. 어둠 속에서 고문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어둠 속에서 진실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나는 알아요. 나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남자

그래, 저 사람은 알지. 눈을 뜨고도 외면했다고는 못하지, 미처 몰랐다고는 못하지. 모른다고는 못하지.

고문 피해자의 목소리 (진모)

내 이름은...

***스크린에 실시간 영상으로 낭독중인 배우의 얼굴이 클로즈업 된다.**

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역시 가난한 노동자로 육십 평생을 살았습니다. 60년대 70년대 시절에는 노동자들이 노예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임금은 주는 대로 받는 거이고, 출퇴근도 없었습니다. 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중앙정보부, 경찰이 떼를 지어 협박하고,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그 뒤로 전국을 다니며 노동자 교육을 했습니다. 노동자의 힘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자고.
그러던 어느 날 남영동에 끌려가 당했습니다. 고문당한 거지요. 날아오는 각목 세례에, 물고문에 까무러치고 경찰병원에 서너번 실려 나갔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건 감옥을 나와서야 알았습니다. 그 뒤로 몇 년간 몸도 마음도 황폐해져갔습니다. 가눌 수 없는 분노와 공포의 밤이 계속 되었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불이 꺼지면 어디선가 기관총으로 나를 쏘아대는 듯한 환상에 빠집니다. 아내와 딸은 정신병원 치료를 권했습니다. 당시에는 동료들도 나를 문둥이 보듯 했습니다.
아내는 '왜 당신만 세상 고민을 다하나'라고 말하지만, 나는 지금도 진보의 희망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분노는 여전히 정당하고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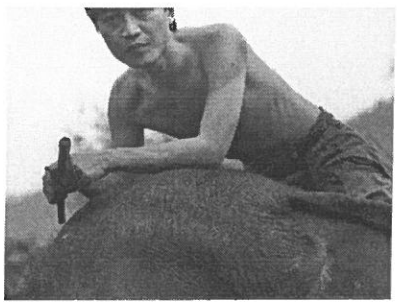
남자

그래. 물론이지. 그곳을 다녀간 모든 사람들이 외치고 있다. 하지만 누가 관심을 가지는가?

박지혜

당시 나는 밀림에 살면서 미얀마 시골 사람들의 참혹한 생활을 보았습니다.

***스크린에 카 소 와 라는 이름과 사진이 나타난다.**



나는 군기지 건설 징집 현장의 모든 사람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어떤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아들이 자살을 했다고 하더군요. 군인들이 몰려와 아들에게 자기 어머니와 성관계를 가지게 한 겁니다. 아들은 수치심을 못 이기고 자살을 했지요. 어머니는 망연자실했고요. 그 때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펜이나 종이도 없었습니다. 저항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사건이 늘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서, 무기를 들고 싸우기나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증언을 듣는 작업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최선을 다 해 이야기들을 모으려는 거였지요. 어느 날 나는 어떤 다른 일에 집중하던 인권 조직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곳의……쓰레기통에서, 나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증언을 기록한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 서류를 운송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데, 사람들이 겪은 고통을 기록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걸 구겨서 내버렸더군요.

남자

카 소 와. 미얀마 출신. 그래. 그는 망연자실했다. 그래. 하지만 우리는 그에게 소용없는 짓이라고 이미 이야기했다. 그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지혜

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러나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등을 돌리고 가 버린다면 이 일은 누가 할 것인가? 용기? 나는 용기가 힘에서 나오는 건지 고통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스크린에 실시간 영상으로 낭독중인 배우의 얼굴이 클로즈업 된다.**

고문 피해자의 목소리 2 (옥출)

내가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그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족을 들먹이면서 협박을 했을 때. 내 여동생을, 그리고 내 친구 여동생 이름을 들먹이면서 잡아와 성기털을 세 개만 뽑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고 했어요.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 나를 수괴로 몰아가면서 그렇게까지 말을 하다니. 정말 내가 한 것 아니니 거기에다 내가 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없었고, 그렇게 아니라고 하며 버틸 수 있었는데. 그런데 여동생 말을 할 때는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짓으로 굴복하고 형을 받게 된 거에요.

(남건)

잡혀온 사람들은 바깥사람들이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하면 견디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고문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 점을 이용해 죄수의 입을 열려고 합니다. 자, 그래도 모르겠냐, 다들 너한테는 관심도 없어. 그러는 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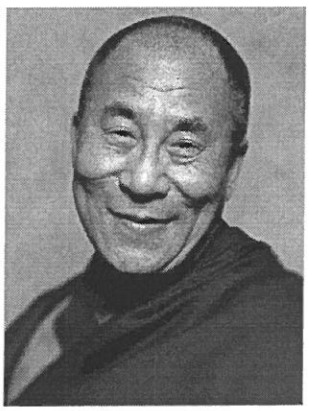
(아라)

우리는 희망을 잃을 권리가 없다.

오정택

내가 아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스크린에 달라이 라마 라는 이름과 사진이 나타난다.**



많은 티베트 사람들이 인도로 나 달라이 라마를 만나러 와서 자기 아버지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가 어떻게 죽었는지, 자신이 어떻게 고문을 당했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자주 울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제는 눈물이 말라 버렸습니다. 티베트의 나쁜 소식을 듣게 되면 나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커다란 슬픔입니다. 그러나 낙담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무력한 분노는 정신에 독이 되고, 심장을 울분으로 감싸고, 의지를 무르게 합니다. 우리는 넓은 시야에서 이 일을 보아야 합니다. 자유, 진리, 정의를 찾아가는 인간의 기본적 성향이 결국은 승리를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김남건

내가 아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스크린에 코이기 와 왐웨레 라는 이름과 사진이 나타난다.**

우간다로 탈출해서 지내던 어느 날 밤 가면을 쓴 다섯 사람이 나를 납치하여 케냐로 데려갔습니다. 경찰서 지하 감방으로 들어갔는데, 눈을 떠 보니 물바다 속이더군요. 나는 알몸으로 한 달 정도를 물속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물을 얼리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춥던지 몸이 덜덜 떨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군요. 또 어떤 때는 너무 뜨겁게 덥혀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낮에는 심문을 받았습니다. 지붕에서 밀어버리겠다고 협박도 하더군요.

남자

거짓말. 우리는 저 자를 지붕에서 밀어버리겠다고 협박한 적이 없어. 코이기 와 왐웨레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니까. 케냐에 자유가 없다는 말도 거짓말이야. 케냐의 숲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말도 거짓말이야. 케냐의 국영기업들이 부패했다는 말도 거짓말이야. 권력자들이 부족주의를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말도 거짓말이야. 저 자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지붕에서 밀어버렸어야 하는 건데.

김남건

그래요. 내 이름은 코이기 와 왐웨레입니다. 감옥에 있는 것도 힘들었지만, 살아남는 것보다 더 용기가 필요한 일이 감옥을 나와서 중단되었던 일을 다시 계속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나는 계속했습니다. 나는 계속했어요.

고문 피해자의 목소리 3 (민호)

당시에는 분노가 없었어요.

***스크린에 실시간 영상으로 낭독중인 배우의 얼굴이 클로즈업 된다.**

폭력에 길이 들여지더라고. 그런데 교도소에서는 분노가 있었어요. 살려달라고 빌었던 수치감, 나에 대한 분노, 나를 짓밟았던 걔네에 대한 분노. 그때 그 수치심은, 내 인격이 부서지는 것에 대한 분노인데, 이제 나를 향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수하려고 화장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욕이 나와. 나에 대한 거부감. 폭력에 굴복했다는 비굴함. 머리나 가슴은 아니었지만 몸이 이기지 못했던.

저는 지금도 커튼 치고 이런 거 싫어해요. 불 다 켜 놓고, 베란다 문 다 열어놓고. 어두우면 안 좋아요. 밝아야 편안하고. 지금도 늘 TV 틀어놓고 자고. 혼자 격리 되어 있는 상황이 너무 싫어요. 바깥이 안 보이는 닫힌 세상.....인식 못했는데.....맞네요. '꼭 감방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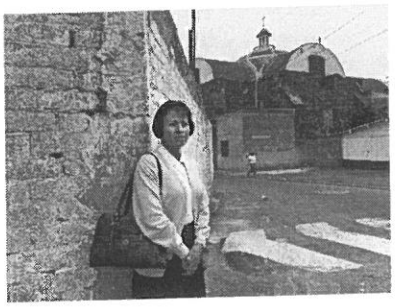
(진모)

당신은 죽음의 복도로 걸어 들어갔고……

박옥출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어요? 내 이름은 디그나 오초아예요.

***스크린에 디그나 오초아 라는 이름과 사진이 나타난다.**



멕시코 베라크루스 노동조합의 지도자였던 아버지는 1년 15일 동안 부당한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 뒤에는 "실종"되어 고문을 당했죠. 죄목은 날조된 것이었요. 그것을 보고 나는 불의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아버지 일로 불의를 생생하게 목격했기 때문이죠.
농민 몇 명을 불법 구금하고 고문한 사법 경찰을 고발한 것이 내가 맡은 첫 사건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더러 손을 떼라고 전화가 오더군요. 그 다음에는 우편물이 날아와 손을 떼지 않으면 나와 내 가족이 몰살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했어요. 하지만 나는 계속 밀고 나갔고, 심지어 사건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기도 했죠. 그러자 이번에는 내가 "실종"되었어요... 나는 아버지가 느꼈던 것, 다른 사람들이 겪었던 것을 내 몸으로 느끼고 겪게 되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늘 분노를 느꼈어요. 나에게는 분노가 에너지이고, 힘이에요. 만일 불의의 행동이 내게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관심이나 수동적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불의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하게 되고, 위험을 무릅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늘 그대로일 테니까요. 우리는 분노 때문에 경찰이나 군대와 맞서게 되는 거예요.

고문 피해자의 목소리 4 (정택)

나는 지난 주에야 고문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스크린에 실시간 영상으로 낭독중인 배우의 얼굴이 클로즈업 된다.**

그전까지 나는 고문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0년전 동료들과 대공분실에 끌려들어갔을 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덜 맞았기 때문에 '나는 고문당하지는 않았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출감 이후 사소한 일에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못 견뎌할 때도 그냥 예민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분노가 가까운 가족에게 향하고 자식과 아내에게 터무니없는 화를 내고 돌아서며 이런 내 모습이 혐오스럽고 낯설게 느낄 때도 이것이 고문으로 인한 것이라는 생각은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대공분실에서의 그날 밤, 옆방에서 새어나오는 친구들의 비명소리, 매맞는 소리. 그 소리는 지금도 내 심장을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장 수술을 받고 시골에 내려와 살고 있죠.

고문 피해자의 목소리 5 (지혜)

***카메라가 자연스럽게 다음 낭독자로 이동한다.**

내 나이 벌써 오십을 넘겼어요. 한참 노동운동을 할 때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전투태세를 하고 늘 긴장하고 치열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도 한시도 자신을 여유있게 두지 않고 자신에 가혹해지고 나를 고문했던 것 같습니다. 나와 내 자신을 안 돌보고, 다른 사람들도 안 믿고 피했습니다. 사람 사귀는 게 참 안되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해야 할 일만 따라갔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 2008년까지는 시신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고, 조그만 것에 민감하고 한번 분노가 폭발하면 나 자신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 이혼하려고도 했었지요.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도 했지만 내가 볼 때 남편은 벽창호였습니다. 남편은 나를 벽으로 느꼈을지도 몰라요.
내 의지, 가치대로 살다보니 지금 내 몸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고문에 의한 고통이 계속되었고 나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싸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의지 때문에 고통당한 내 몸에 미안하고 사과하고 싶습니다.

***스크린에 메리언 라이트 에델먼 이라는 이름과 사진이 나타난다.**

조아라

인생을 살다 보면 주위를 둘러보며 인생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 바꾸어야 해요. 모두 자기 영혼의 봉투를 열고 그 안에서 자기가 받은 명령서를 꺼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첫 걸음을 내딛는 데 계단 전체를 볼 필요는 없죠. 뛸 수 없다면 걸으세요. 걸을 수 없다면 기세요. 길 수 없다면 그냥 계속 움직이기라도 하세요. 그냥 계속 움직여, 메리언 라이트 에델먼, 그냥 계속 움직여.

기민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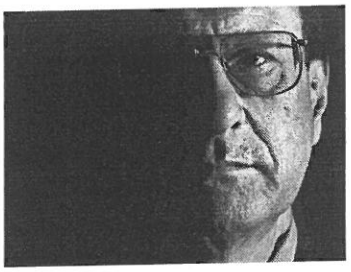
나는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은 셈입니다. 내가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면, 글쎄요, 내가 똑같이 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날 때부터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외려 평범한 사람이고 가능한 위험을 피하려고 했지요. 결국 내가 보여준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 것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위험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피를 보는 데 익숙해지는 것과 같은 거겠지요.

남자

호세 살라케트. 그래. 물론이다. 칠레의 그 변호사다.

***스크린에 호세 살라케트 라는 이름과 사진이 나타난다.**

아무도 갈 수 없는 수용소에 들어갔던 그 변호사. 두 번이나 투옥되었던 그 변호사. 살라케트.



(아라)

나는 겁이 날 때마다…….

***스크린에 아스마 자한지르, 히나 질라니 라는 이름과 사진이 나타난다.**

……나는 겁이 날 때마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집에 가곤 했어요. 나는 그곳으로 우리 친구들을 다 초대했고, 우리는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 유머 감각,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온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적어도 나는요. 만일 고립되어 혼자 앉아 있었다면, 나는 미쳐 버렸을 거예요.

(진모)

작은 성공이 큰 의미가 있어요. 그나마 아주 드물게 만나게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죠. 뭔가가 있다는 것, 터널 끝에 빛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빛을 여러 번 보았어요.

(남건)

***스크린에 후안 멘데스 라는 이름과 사진이 나타난다.**

내 이름은 후안 멘데스입니다. 아르헨티나 사람이지요.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습니다.

(민호)

***스크린에 밴 존스 라는 이름과 사진이 나타난다.**

내 이름은 밴 존스입니다. 우리 조직은 미국에서 인권 침해 사례를 폭로합니다. 특히 경찰의 가혹 행위를 폭로합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옥출)

***스크린에 파트리아 히메네스 라는 이름과 사진이 나타난다.**

내 이름은 파트리아 히메네스예요. 멕시코 사람이죠.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정택)

***스크린에 프리덤 네루다 라는 이름과 사진이 나타난다.**

내 이름은 프리덤 네루다입니다. 아이보리코스트 사람이죠.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진모)

***스크린에 새뮤얼 코피우즈 라는 이름과 사진이 나타난다.**

내 이름은 새뮤얼 코피 우즈입니다. 라이베리아 사람이지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다솔)

내가 등을 돌리고 가 버리면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지혜)

용기가 필요한가요? 나 같으면 고집이 필요하다고 말하겠어요.

(아라)

용기는 하나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남자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스크린에 이름 모를 올가미를 맨 인물의 사진이 나타난다.**

당신들의 이름. 우리가 잊지 않을 이름들, 나는 잊지 않을 이름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 이름들을 잊을 것이다. 이미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있다, 그 이름들은. 이 의기양양하고 도전적인 피날레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고? 지금은 그들에게 조명이 비추고 있다. 곧 박수갈채가 터지고 그들을 어루만질 것이다. 하지만 결국 조명은 희미해지고 하나둘 꺼질 것이다. 관객은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들의 텔레비전에서는 화려한 영상이 펼쳐질 것이다. 멀리서 언뜻 보았던 얼굴, 어쩌면 바로 여기 있는 얼굴 하나가 스치듯 떠오르겠지만 이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밤이 올 것이다. 다시 잠들 시간이다. 늘 오던 날처럼 또 하루가 오고, 마침내 그들과 우리, 그들과 나. 또다시 그들과 나로 분리 될 것이다. 당신들은 결국 포기할 것이다. 외면할 것이다. 두려워 할 것이다. 나는 여기서 그것을 기다리는 중이다. 늘 내 차례가 온다. 나는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사이

***스크린에 <SPEAK TRUTH TO POWER> 사진이 나타난다.**

(옥출)

아주 어두운 시절에도
아주 어두운 시절에도
사람들은 있었다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일어서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었다.

(민호)

삶은 당신에게 오직 한 번뿐. 용기는 하나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

(정택)

나는 뒤에 남은 사람들에게 뭔가 빚을 지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괴로워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남건)

그들에게는 목소리가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목소리가 되었다.

(아라)

당신이 아는 것은 그것뿐
다른 모든 것은 괴로워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장군과 총이 아니라 학교와 의사를 달라고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 된다

(지혜)

나는 혼자였던 적이 없다
당신이 아는 것은 그것뿐
오직 다른 사람만이 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오직 다른 사람만이 나에게서 희망을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솔)

용기가 필요했을까?
고집이 필요했다 고집이
안에 쇠심줄이 박힌 것처럼 내부의 힘이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당신 자녀들의 미래가 되지 않는다

(옥출)

우리는 할 일을 했다, 그뿐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괴로워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남건)

그래서 우리는 계속한다
어둠 속에서 진실을 기다리며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진모)

나는 영웅인척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뿐이다
사실 그렇게 간단한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괴로워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이 아는 것은 그것뿐
일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아라)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뿐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모두 함께)

일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조명이 무대를 환하게 비춘다.